

광주서부교육지원청, 노후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추진

2023년까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100% 목표로 단계적 예산 확보

교차오염 방지 위해 전처리실 미확보 및 협소학교 우선 추진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오는 2023년까지 학교 급식실 내 전처리실 확보 등 노후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100% 완료를 목표로 세웠고, 시교

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연차별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학교급식시설 현대화는 급식시

설·설비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현대적 급식기구의 확충을 의미한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관내 전처리실 미확보 및

협소학교 18개교를 급식시설 현대화 대상학교로 우선 선정했다.

추후 학교급식시설 개선 TF팀 현장점검을 통한 추가 대상학교 수요 조사를 실시해 최종 대상학교를 선정기로 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강윤석 행정서부교육지원청은 노후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추진을 통해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결과 급식실 노후화 및 구조적 시설 문제 등으로 발생되

는 반복적 지적사항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급식전담직원의 근무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강윤석 행정서부교육지원청은 "이번에 추진하는 노후 학교급식시설 현대화를 통해 전반적인 학교급식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식중독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

하고, 급식실 내 쾌적한 조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박주영 교육장은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현장의 고질적인 시설·설비 문제해결을 위해 학교 관계자와 상호협력하며 적극행정을 펼쳐 노후 급식실 현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기자

해남동초, 비대면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개최

졸업기념 및 해남동 희망오케스트라 연주회 실시



해남동초등학교(교장 김천옥)는 지난 8일 '제109회 졸업기념 및 제9회 해남동 희망오케스트라 연주회'를 해남 꿈누리센터에서 실시했다.

이번 공연은 제109회 졸업생의 졸업을 기념하고, 해남동 희망오케스트라의 한 해 활동을 점검하며 무대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실시간 영상과 음향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됐기에 본교 학생 및 학부모는 물론 관심 있는 해남주민 모두가 연주회를 시청할 수 있었다.

본교 김교은 선생님의 진행과 함께 현악부 1,2학년 단원들의 '초록바다' 외 2곡과 3,4학년 단원들의 '오펜바흐' 천국과 지옥 중 강강 외 2곡의

축하연주로 무대의 막이 올랐다. 이어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2020년 활동 영상과 함께 '그리그'의 'March of the Dwarfs(난쟁이들의 행진)'을 비롯한 9곡의 행진곡이 연주됐다.

연주회에 참여한 오형철(6학년) 학생은 "오케스트라를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아 박자감도 어렵고 지휘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악적 표현을 이해하기 힘들고 버거웠지만, 함께 노력해서 연습하고 공연까지 하니 정말 뿌듯했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오케스트라 지휘자 정희승 선생님은 "초등학생이 소화하기 힘든 부분도 많았는데, 끝까지 믿고 따라 와줘서 고맙고, 단원들이 힘들었던 시간만큼 음악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해남동초는 학생들의 다양한 예술 체험을 위해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맞춘 비대면 형식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연주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동취재본부

전남교육연구정보원, 현장 이야기 담은 책 14권 출판

교사 대상 책 출판 공모사업 결실로 전남미래교육 견인차 역할 책과 함께하는 교직원 문화 형성으로 교육나눔 문화 확산 기여



전남 교사들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뚫고 현장의 교육 이야기를 14권의 책으로 펴내 화제이다.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원장 정경모)은 지난 11일 전남미디어센터에서 '교실 혁신 전남 교사, 한 권의 책이 되다' 책 출판 프로젝트 성과 현장 공유를 위한 영상을 제작하였다.

'교실 혁신 전남 교사, 한 권의 책이 되다'는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이 추진하는 출판 공모 사업이다. 교사의 전문성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업 혁신으로 선순환된다는 취지로 시작한 이 사업은 전남교사들의 수업혁신 우수 사례를 책으로 펴내도록 지원·컨설팅 한다. 공모에 참여하여 4월에 선출된 교사들은 1년간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집필 한 후, 연말에 한 권의

책 출판과 함께 정식 출판 저자로 데뷔한다.

이번에 정식 출판된 책은 모두 14권이다. 이 중 7권의 책은 개인 저자, 8권의 책은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한 공동 저자로 총 34명의 교사가 참여하였다. 참여 결과 ▲'그림책, 놀이로 통하다' (심정화 외 2인), ▲'선생님의 8시간' (김연중 외 4인), ▲'프로젝트 수업의 즐거움' (김석주), ▲'왜 교사 수준 교육과정인가' (박진수), ▲'공간 혁신 이야기' (오승환 외 2인), ▲'행복한 교실을 위한 놀이와 연구' (최주인), ▲'좌충우돌 통합수업이야기' (남순현 외 2인), ▲'학교와 마을을 넘어' (이계풍), ▲'선생님, 예술로 수업해요' (김순오), ▲'선생님, 오늘은 뭐하고 놀아요?' (김한결), ▲'보배로

운 교사 생활' (박은옥 외 4인), ▲'배움이 빛나는 프로젝트 학습' (황기웅 외 6인), ▲'다정한 교실에서 20000시간' (강정희), ▲'부모와 교사의 진로코칭 마인드셋' (김미숙)이 출판되었다.

'선생님, 오늘은 뭐하고 놀아요?'를 출간한 죽곡초등학교 김한결 교사는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다는 꿈이 전남교육연구정보원의 '교실 혁신 전남 교사, 한 권의 책이 되다'라는 사업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책을 쓰는 동안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며 교사로서 교육적으로 성장하고 반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고, 이번 출판을 계기로 앞으로도 꾸준히 교육 활동들을 기록하여 개인적 성장을 넘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경모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14권의 책에 담긴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 이야기들은 전남미래교육을 위한 선제적인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책과 함께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아이들에게도 독서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전남의 독서인문교육을 활성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전남미래교육의 답은 현장에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제한,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 되어 어려움이 많지만, 어려움 앞에서도 스스로 불길이 되어 걸어가는 선생님들이 있어 든든하다"며 "출판된 책이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의 다양한 연수 자료로 활용되어 선생님들의 역량을 함께 강화하고 전문성을 향상하는 공유의 길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목포교육청, 전남목포혁신교육지구 마을강사 모집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갑수)은 목포지역 마을강사 인력풀을 구축하고 학교의 요청에 맞는 강사를 연결 지원하기 위해 11일부터 29일까지 '전남목포혁신교육지구 마을강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2021년 전남목포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유·초·중·고 정규 수업시간에 목포지역의 생태·문화·역사·예술 분야 등에서 수업을 지원할 각 분야에 재능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마을강사'

로 발굴하기 위해 협력 강사를 모집한다.

작년에 마을강사와 협력하여 수업을 진행했던 '학교-마을강사 연계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 7교(29개 학급)를 대상으로 마을강사 17명을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연결하여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고, 마을강사에 대한 인력풀의 수요가 매우 높았다.

이에 올해는 마을강사 인력풀을

충분히 확보하여 '학교-마을강사 연계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유·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하고, 학교가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플랫폼을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1월 11일부터 1월 29일까지 19일간이며, 제출서류는 목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전문성 및 적합여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목포=박정수 기자

